

## 日本の 스트리트 패션에 관한 研究 - 1980年代를 中心으로 -

廉 惠 晶

全北大學校 生活科學大學 衣類學專攻 助教授

## A Study on Street Fashion in Japan - Focusing on the 1980s -

Hae-Jung Yum

Assistant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street fashion in Japan of the 1980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Mainichi Newspaper published in Japan from 1950 to 199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fter world war II, the street fashion had changed through the styles of the Panpan, Après, Miyuki, Hippie & Hooten, Bikers in Japan.
2. The 1980s was characterized as an era of post industrial society and the appearance of Shinjinrui which means new human. In street fashion, these changes led to greater focus on unique style in Japan. In the 1980s, the street fashion had developed within four styles : traditional casual wear style, American sports wear style, performance - oriented style, and Japanese DC brand style in Japan.

### I. 서론

현대사회에 있어 패션은 사회변동의 주요 인자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된다. 즉 현대패션은 특권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가진 대중들에 의해 창조되고 고도로 세분화된 코드에 의해 취사선택되고 있다<sup>1)</sup>. 특히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 속에서 부각된 젊은 세대는 기존 복식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치체계를 부정하며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독특한 패션을 추구하여 왔다. 이는 패션의 분열과 다양화를 향한 조류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sup>2)</sup>으로, 그 후 젊은 세대는 패션의 중심에 위치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왔다<sup>3)</sup>.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존 길리스(John R. Gillis)가 “20세기 중반 이후 발전해 온 청년문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 국제적인 성격에 있다”<sup>4)</sup>고 지적하였듯이, 젊은 세대의 독자적인 패션의 추구는 거의 전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났으며, 그 대부분은 거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뉴욕, 런던, 파리, 동경 등과 같은 세계의 대도시에는 이미 히피나 펑크 등과 같은 청년 하위문화그룹들이 동시에 출현하여, 이제 패션은 일부 지역이나 계층만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증명한 바 있다.

그리하여 젊은 세대들의 패션문화나 의복행동은 전세계에 공통하는 관심거리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하위문화 복식이나 스트리트 패션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몇몇 연구<sup>5)</sup>를 제외하고는 서양세계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sup>6)</sup>.

본 연구는 특히 일본에 초점을 맞추어 스트리트 패션을

살펴 본 것으로, 우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어떻게 등장하고 변천되었는지를 알아 보았으며,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80년대에 이르러 독자적인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시점 하에 그 시대적 배경과 스트리트 패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 일본문화의 국내 개방 등으로 더욱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일본의 문화 중 가장 가시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젊은이들의 패션, 즉 스트리트 패션의 역사와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서양 및 한국과의 비교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일본의 청년문화와 복식에 관련된 문헌을 기초 자료로 하였으며, 특히 당시의 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1950년부터 90년까지의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을 자료로 하여 그 곳에 게재된 청년문화와 패션에 관련된 기사 및 사진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내용을 전개하는데 있어 용어는 되도록 정식 명칭으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그 자체가 일본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일본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II.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발생 및 변천

### 1.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발생배경

#### 1) 도시화와 대중사회의 출현

미국의 사회학자 피셔(Fischer C. S.)는 하위문화의 출현을 도시화와 결부시켜 설명한 바 있다.<sup>7)</sup> 즉 이질적인 거대한 인구 층에 의한 도시의 집중현상은 사람들간의 연대감과 사회적 구조를 약화시켜 사람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끼는 한편, 일탈행동과 아노미(anomie) 현상을 출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도시화와 그에 따른 대중사회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이미 전후(戰後)는 아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전후 회복을 통한 성장은 이미 끝났다. 앞으로의 성장은 근대화로 이루어진다.”<sup>8)</sup> 이상의 경제백서(經濟白書, 56년)의 문구가 의미하듯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사회는 전후 폐허로부터 재기하여 그 이전과는 다른 경제 사회적 체제를 구축해 갔다.<sup>9)</sup> 그리하여 50년대 중반에 이르면 공업화에 따른 기술개혁과 근대적 생활양식의 도입으로 고도경제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또한 51년에는 라디오의 민간방송이 시작되고 53년에 NHK의 TV방송이 개국하여 본격적인 대중매체 시대가 개막되었으며<sup>10)</sup>,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여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었다. 즉 전후 50년대에 이르

는 일본은 근대화와 서양화를 추구했던 시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생활양식과 근대적인 가전제품이 보급됨에 따라 생활의 근대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갔다.

이 같은 변화는 도시적인 생활양식과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사회의 출현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복식에 있어서는 대량생산에 대량소비로 형성되는 60년대의 대중패션(mass fashion)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제 사회적 기초가 급속히 형성되었으며,<sup>11)</sup> 그에 따라 스트리트 패션도 빠르게 전개되어 갔다.

#### 2) 청년문화(youth culture)의 형성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어지러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독특한 패션으로 자신을 주장할 만한 주체성도 가처분 소득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후 점차 사회가 안정되어 가면서 일본에 있어 처음으로 스트리트 패션이라 불릴만한 스타일이 나타났는데, 그 대부분은 전후 새롭게 생성된 경제적 특권층의 자녀들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에 있어 청년문화에 의한 스트리트 패션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塊) 세대’<sup>12)</sup>가 등장한 60년대 중반 이후이다.<sup>13)</sup> 마이니치신문은 68년 1월부터 19회에 걸쳐 ‘미니 세대’와 70년 1월부터 일년간 ‘젊은이들’이란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반체제성과 세대간 단절, 그리고 장발, 청바지 등과 같은 독특한 외모<sup>14)</sup>를 특성으로 삼고 있다. 특히 그들의 반체제성은 정치적 활동으로 이어져 68년부터 69년에 걸쳐 전국의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격한 학생운동이 절정을 이루었으나 69년 동경대학의 야스다(安田)강당 함락 사건을 계기로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격감하였다. 그리하여 공해문제와 석유파동 등으로 상징되는 70년대 일본의 청년문화는 시라케(しらけ)라 불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되어 갔다. 시라케란 ‘흥이 깨지다’, ‘어색하다’의 의미로 격한 대항문화 이후의 젊은이들의 내면화, 보수화 현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70년대의 젊은이들은 비정치적인 사생활을 중시하는 한편, 음악과 스포츠와 같은 유희적 수단을 즐겨 사용하였고<sup>15)</sup> 그와 함께 스트리트 패션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갔다.

#### 3) 양장의 보급과 기성복 산업의 발전

전쟁 중 일본에서는 복식을 위시한 모든 생활에 규제가 있었다. 40년에는 국민복령이 공포되어 남성은 군복을 모방한 카키색의 국민복, 여성은 몸빼가 외출복으로 의무화되어 있었다.<sup>16)</sup> 전쟁이 끝나자 많은 여성들은 서서히 몸빼가 아닌 스커트와 원피스와 같은 양장을 채용해 갔는데 그에 따라

일본에 있어 본격적인 양장문화가 시작되었다.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는 전쟁 중에 입었던 몸빼나 기모노를 양장으로 고쳐 입는 소위 갱생복(更生服)이 인기를 모아 이를 계기로 하여 양재학교가 붐을 이루었다.<sup>17)</sup> 또한 46년에는 패턴이 부록으로 들어간 여성용 패션잡지인 ‘장원(裝苑)’과 ‘드레스 메이커 패턴북(dress maker pattern book)’이 창간되었다. 한편 47년에 맞춤복 연맹인 ‘전일본양복상공조합연맹’이 부흥됨과 동시에 기성복업자들의 ‘일본기성복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결성되어 맞춤복과 기성복업자 사이의 조직화가 진행되었으나<sup>18)</sup>, 5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의생활은 양재 이외에도 파리의 오토 쿠튀르를 동경한 이지오더(easy order)<sup>19)</sup>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일본에 있어 본격적인 기성복체제가 시작된 것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기에 이르는 무렵부터이다. 그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 대규모의 합성섬유회사들이었으며, 이에 그 때까지 최고급을 지향해 왔던 백화점들이 합세하여 패션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기성복 보급에 앞장섰다.<sup>20)</sup> 따라서 사람들의 의생활 면에 있어 기성복화가 착실히 진행되어 57년에 이지오더와 기성복의 비율이 7대 3이던 것이 62년에는 4대 6이 되고 63년에는 3대 7의 비율로 역전되어 갔다.<sup>21)</sup> 그 후 가시야마, 레나운 등과 같은 기성복업체들이 본격적인 판매촉진 전략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에도 비교적 중저가의 볼륨 존(volume zone)을 목표로 한 대형 양판점과 스즈야(鈴屋), 산아이(三愛)와 같은 패션 전문점이 착실히 신장되어 갔다.<sup>22)</sup> 그 결과 6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의생활에 기성복이 완전히 정착됨과 동시에 캐주얼웨어가 확산되어 스트리트 패션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갔다.

## 2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변천

### 1) 판판(パンパン)과 아프레족(Après族)

판판이란 당시 미국 주둔군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전쟁 직후부터 50년대 전반까지 판판 스타일을 등장시켜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원색의 의복, 퍼머먼트 헤어스타일, 화려한 메이크업, 높은 힐의 구두, 숄더 백 등의 미국 지향적인 외모를 하였다.<sup>23)</sup>

한편 전쟁으로 인한 가치관의 전환은 당시의 젊은 세대에 깊은 혼란을 주어 아프레라 불리는 젊은이들과 패션풍속이 나타났다. 아프레란 불어로 전후파(戰後派)란 뜻을 갖는 아프레 개르(après garre)의 약자로 아프레(après)는 ‘...의 뒤에’, 개르(garre)는 ‘전쟁’이란 의미이다. 즉 아프레란 제 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에 전후파란 명칭이 들어오면서 전쟁 후 새로

운 특성을 갖는 청년들을 가리켜 사용한 말이다.<sup>24)</sup> 또한 50년대 초반 연이어 발생된 금전과 향락에 목적을 둔 젊은이들의 범죄를 아프레 범죄라 부르기도 했는데 그들의 반사회성과 미국 지향적인 외모는 당시 사회에 강한 인상을 주었다. 예를 들면 당시 주일(駐日) 미군의 일상복을 모방한 알로하 셔츠(aloha shirt)와 맥아더풍 선글라스등을 들 수 있다.

### 2) 태양족(太陽族)

50년대 중반 경제 부흥을 선언하기 시작한 무렵, 젊은이들의 우상은 소설 ‘태양의 계절(55년 발표)’로 아쿠타가와(芥川)상을 수상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와 그 동생인 배우 이시하라 유지로(石原裕次郎)이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태양족이란 그들의 패션을 모방하여 56년 여름 동경 부근의 해안인 쇼난(湘南)을 중심으로 나타난 젊은이들을 가리킨다. 그들의 패션은 남녀 모두 티셔츠와 알로하 셔츠에 선글라스를 썼으며, 남성의 경우 뒤와 옆은 짧게 자르고 앞머리는 내려뜨린 일명 ‘신타로’ 헤어 커트를 하고 있었다.<sup>25)</sup>

태양족의 대부분은 특권층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그들의 자가용 요트 등은 당시 사회의 비난을 받곤 했다. 따라서 해안을 중심으로 한 리조트 웨어는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관심과 모방을 낳아 타운웨어로 확산되어 갔다. 이는 50년대 초부터 60년대 중반에 이르는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특징으로, 그 이후 60년대 초까지 일부의 특권층이 유행을 만들고 그것이 단축된 형태로 확산되어 간 예<sup>26)</sup>들이 연이어 출현하였다.

### 3) 미유키족(みゆき族)

미유키족이란 이름은 10대 후반의 남녀들이 긴자(銀座)의 미유키 거리 주변에서 무리를 지어 이야기하거나 찻집에서 춤을 추기도 한 데에서 유래한다.<sup>27)</sup> 일본의 패션사와 젊은이들의 풍속사를 보면 미유키족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꽤 오래 지속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동경 올림픽이 열렸던 64년 5월경에 나타나 여름에 절정을 이루다가 가을에는 거의 종적을 감추어 버린 스타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유키족이 화제가 된 것은 그들의 기이한 패션 때문이었다. 여성들은 머리에 삼각형으로 접은 컬러풀한 수건을 쓰고 뒤에 리본을 커다랗게 묶어 늘어뜨린 롱 스커트를 입었으며 짙은 색의 스타킹에 낮은 굽의 구두나 샌들을 신기도 했다. 그리고 손에는 원두 커피를 넣는 천으로 만든 주머니나 대나무로 짠 바스켓을 들고 다녔다.<sup>28)</sup> (그림 1)

한편 남성은 크게 아이비 스타일(iv style)과 콘티넨탈 스타일(continent style)로 나뉘었다. 아이비 스타일은 버튼 다운



<그림 1> 미유키족(64년, 東京)  
毎日新聞, 64. 10. 2



<그림 2> 신주쿠역 앞의 히피들 (69년, 東京)  
毎日新聞, 70. 1. 1



<그림 3> 포클로어 패션(75년, 東京) 戦後  
のファッションと流行色, p.56

(button down) 셔츠가 대표적으로 셔츠 위에 베스트와 넥타이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바지는 버뮤다 팬츠에 검은색 양말, 또는 짧은 길이의 면 팬츠에 백색 양말을 신었다. 당시 젊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브랜드 'VAN'의 스타일이 중심을 이루었다.<sup>29)</sup> 그에 반해 콘텐탈 스타일은 64년 개봉된 영화 '007'의 주인공 존 코넬리를 모방하여 허리를 조인 사이드 벤트(side vent)의 재킷에 폭이 좁은 넥타이를 매고 아타셰 케이스(attaché case)를 들고 다녔다.<sup>30)</sup>

미유키족의 패션은 남녀 모두 지금 보면 그리 기이하지는 않다. 그러나 당시 젊은이들에게 있어 미유키족의 스타일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동경 올림픽을 맞이하여 벌인 거리 정화운동의 표적이 되어 불과 몇 개월만에 소멸되었다.

#### 4) 히피(hippie)와 후우텐족(フ-テン族)

60년대 후반 미국에서 나타난 히피는 60년대라는 변혁의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풍속, 음악, 패션 등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경제적 성장이 절정에 달했던 60년대 말, 구체적으로는 67년에 일본식 히피와 후우텐족<sup>31)</sup>이 등장하였다. 그린하우스라 불렀던 신주쿠(新宿)역 동쪽 출구 앞 광장에 물끄러미 통행인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장발에 수염을 기르고 더러운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으며 긴 목걸이를 한 모습이었다.<sup>32)</sup> (그림 2)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히피와 후우텐은 미국과 같이 커다란 운동이 되지는 않았으나 그 후 일본의 독자적인 하위

문화를 탄생시키는 계기를 형성한 그들의 공적은 크다. 특히 복식의 측면에서는 청바지와 티셔츠의 확산 등 의복의 캐주얼화를 가속화하였으며 유니섹스 패션을 일본에 보급시켰다. 그 외에도 히피로부터 포클로어(folklore)가 도입되어 튜닉과 티어드 스커트(tiered skirt) 등의 레이어드 스타일(layerd style), 프릴 장식, 작은 꽃무늬, 강임 체크(gingham check), 두꺼운 통굽의 코르크 샌들과 니트 부츠 등 로맨틱하고 페미닌한 감각이 젊은 여성의 패션으로 일반화되었다. (그림 3)

#### 5) 폭주족(暴走族)

모터사이클을 타고 폭음과 함께 거리를 질주하는 젊은이들의 무리는 일찍이 50년대 말부터 등장했다.<sup>33)</sup> 최초 그들은 천둥이란 의미의 가미나리족(カミナリ族)이라 불렀는데, 스타일을 보면 53년 마론 브랜드 주연의 영화 'Wild one'에서 영향을 받은 서양의 청년 하위문화집단 바이커(bikers)와 비슷한 가죽 점퍼에 백색의 긴 머플러를 두르고 헬멧을 쓴 모습이였다.

이에 비해 폭주족은 7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전국적으로 자연발생한 집단으로 심대 후반을 중심으로 한 불량소년소녀들이 중심을 이루었다.<sup>34)</sup> 그들은 매직 잉크로 '極惡' '影道(shadow)'와 같은 문자를 쓴 일장기를 자동차나 모토사이클에 달고 머리띠를 활날리면서 시끄러운 괴음과 함께 밤거리를 질주했다. 극단적으로 기울여 쓴 선글래스, 웨이브가 들어간 리젠트(regent) 헤어 스타일<sup>35)</sup> 등이 특징이었으며 '갈보지마(なめんなよ)'란 말을 입버릇처럼 하였다. 이는 60년 전후 태어난 불량 십대들이 석유파동 이후 지속된 불황과 나날이 격화된 수험전쟁이라는 70년대 일본 사회에

대해 자동차와 мотоци클, 복식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대항한 것으로 당시 청년문화에 공통하고 있는 '시라케'의 기분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1980년대에 나타난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80년대 일본의 사회 문화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독자적인 스타일을 형성하여 갔는데 이는 크게 4가지 스타일 속에서 변화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을 전개하는데 있어 70년대 후반에 스트리트 패션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80년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요하거나 80년대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80년대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 1. 시대적 배경

##### 1) 탈공업화 사회의 성립

8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예외 없이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관한 일본경제신문사의 설명<sup>36)</sup>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80년대의 일본은 풍요로운 사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경제를 지탱해 왔던 사람들의 노동관, 가치관이 극히 다양화되었다. 가계소비도 물품에 대한 지출보다는 스포츠, 여행, 교양 등 가볍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 또한 산업의 중심도 철강, 석유화학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정보의 집적, 전달 등의 전자혁명에 의한 새로운 산업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이상은 공업화 사회로부터 탈공업화 사회로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탈공업화 사회란 공업화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인간생활의 실현을 커다란 목적으로 하는 사회이다.<sup>37)</sup> 이로부터 보면 고도 경제성장시대를 통해 계속되어 온 목표지향적 생활이 80년대에 이르러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반영으로서 일주일에 휴일을 이틀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사람들의 여가와 취미 등에 의한 생활의 질 향상에 중점이 놓여졌다. 또한 산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건설, 제조업 등과 같은 제 1, 2차 산업의 비중이 저하하는 한편, 경제의 서비스화와 소프트화를 나타내는 제 3차 산업의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졌다.<sup>38)</sup> 또한 여성들의 섬세한 감각과 감성이 중시되어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전문적, 기술적 직종의 종사자가 크게 증가되었다.<sup>39)</sup> 그와 더불어 젊은 여성들의 미혼율도 상승하여 20-24세 여성들의 미혼율은 75년 69.2%로부터 81년에는 77.9%, 25-29세는 20.9%로부터 23.9%로 증가했다.<sup>40)</sup> 그리고 88년이

되면 이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서 20대 미혼여성들의 76%나 결혼에 구애받지 않고 일과 취미 중심으로 살고 싶다고 대답하여<sup>41)</sup>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출현하여 확산되었던 시대임을 나타냈다. 이는 그 때까지 동질화된 생활형태를 보여왔던 일본사회가 80년대 들어 가치관과 생활 형태의 모든 면에 있어 다양화, 차별화를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 2) 신인류(新人類)의 출현

80년대의 일본은 감성의 문화, 즉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직감과 한 순간의 기분을 중시하는 문화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젊은이들이 사회적인 주목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80년 문예상을 수상한 다나카 야스오(田中康夫)의 '어딘지 모르게 크리스탈(なんとなくクリスタル)'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부터이다.<sup>42)</sup> "같은 것을 사더라도 기분 좋은 것을 사고 싶었다. 주체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 것을 고르다 보니 지금의 내 생활이 되어 있었다." 이 물건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감각, 그를 통해 느끼는 행복한 기분에 관한 표현은 당시 새로운 현상으로서 사회적인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85년 야사히 저널이 '신인류의 기수들(新人類の旗手たち)'이란 기사를 연재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신인류라는 특별한 명칭이 부여되고 곧 일반화하였다.<sup>43)</sup>

신인류는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도시화가 진행되어 간 무렵에 태어난 세대이다. 마이니치신문의 기사를 참고로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인류가 중고생 무렵이었던 77년에 행한 청소년 백서를 보면 청소년들은 여가로 TV를 보거나(76%), 책과 만화를 읽으며(67%), 자전거를 타고(62%), 게임을 하는 것(46%)으로 나타났다(복수 가능).<sup>44)</sup> 그 외에도 스누피(Snopy), 키티(Kitty) 등과 같은 캐릭터 상품을 공유하고 애니메이션을 매일같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5)</sup> 즉 풍요로운 의식주, 화려한 대중문화, 핵가족 등과 같은 환경 내에서 성장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보화의 바람 속에서 극도로 뛰어난 정보감각을 키워왔으며 컴퓨터 등을 직접 경험하고 생활의 일부로 사용해 왔다.<sup>46)</sup> 따라서 그들은 음악과 만화 외에도 비디오, 전자 게임, 광고 등과 같은 영상문화와 왕성한 소비문화를 발달시켰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보력과 감성을 발휘할 수 있는 표현수단으로 패션을 발전시켰으며 그에 따라 스트리트 패션은 안정과 변화라는 면에서 다양한 스타일들이 세대교체를 반복함으로써 일본 독자적인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성립되었다.

## 2 스트리트 패션의 특징

### 1) 트레이디셔널 캐주얼웨어 스타일(traditional casual wear style)

80년대 스트리트 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화하는 한편, 브랜드 세분화 전략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들이 일정 양식으로 패턴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패션잡지들은 각각의 스타일에 대한 코디네이트 법으로부터 브랜드명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스타일의 패턴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70년대 말부터 나타난 상류 지향의 트레이디셔널 캐주얼웨어 스타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의 모방이 아니라 처음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패션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소비사회와 소비자들의 브랜드 지향과 결부되어 80년대 전반에 걸쳐 뉴토라(new traditional), 하마토라(Yokohama traditional), JJ 패션, 시부카지(Shibuya casual)로 전개되어 갔다.

우선 뉴토라(ニュートラ)는 뉴 트레이디셔널의 일본식 약어로 70년대 중반 대표적인 항구도시인 고오베(神戸)와 요코하마(横浜)에서 대두한 보수적 감각의 패션을 가리킨다.<sup>46)</sup> 여성스럽고 어른스럽게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주로 셔츠와 무릎이 가릴 정도의 세미타이트 스커트를 함께 입었는데, 셔츠는 벨트나 말굽 모양의 프린트가 있는 합성섬유 소재를 선호했으며 스커트는 체인이나 이니셜이 새겨진 금속 버클(buckle)로 허리를 장식했다. 특히 액세서리와 스카프, 구두를 중시하여 해외 유명 브랜드인 루비통(Louis Vuitton), 펜디(Fendi) 등이 선호되었다.<sup>46)</sup> (그림 4)

하마토라(ハマトラ)란 79년경 대두된 요코하마 트레이디셔널

의 일본식 약어로, 요코하마에 있는 페리스 여학원(女學院) 학생들의 패션으로부터 비롯되었다.<sup>49)</sup> 뉴토라에 비해 귀여운 인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역시 브랜드 지향이 강하여 '후쿠조(フクゾ)'의 폴로셔츠, '미하마(ミハマ)'의 구두, '기타무라(キタムラ)'의 가방 등과 같이 아이템마다 특정된 브랜드가 있었다. 또한 테니스, 골프 등의 스포츠웨어를 도입하여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나 폴로셔츠에 랩 스커트(wrap skirt)나 원 박스 플리츠의 골프 스커트를 입고 반 양말을 신었다. (그림 5)

75년 창간된 잡지 'JJ'는 뉴토라, 하마토라의 대두를 무엇보다 빨리 선취하여 그녀들을 독자 모델로 대량 기용하였다.<sup>50)</sup> 따라서 'JJ'는 뉴토라, 하마토라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면서 80년대 초에는 뉴토라와 하마토라에 스포티 취향을 혼합한 여대생 패션을 유행시키기도 했는데 이를 JJ 패션이라 통칭하였으며 무엇보다 강한 브랜드 지향이 특징이었다.<sup>51)</sup> (그림 6)

80년대 중반 이후 패션 경향이 고급스럽고 보수적인 의복으로 회귀하면서 다시금 트레이디셔널 캐주얼웨어가 스트리트 패션으로 등장했다. 시부카지(澁カジ)란 88년경 등장한 트레이디셔널 캐주얼웨어로 동경의 시부야(澁谷)를 중심으로 한 캐주얼웨어란 의미의 약어이다. 즉 시부야에 모이는 부근의 야마노테(山の手)<sup>52)</sup> 지역에 사는 유복한 가정의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한 단품 코디네이트 위주의 캐주얼웨어를 가리킨다. 캐주얼웨어라 하더라도 데이반(定番)<sup>53)</sup>이라 하여 전통적이며 고급스런 아이템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직수입 브랜드 위주의 풍요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스타일이다.<sup>54)</sup> 구체적으로는 스트라이프 셔츠에 직수입 청바지, 캐시미어의 V넥 스



<그림 4> 뉴토라 스타일(78년)  
anan, 78. 2. 5



<그림 5> 하마토라 스타일  
(81년, 東京)  
東京の若者, p.45



<그림 6> JJ 패션(80년, 東京)  
東京の若者, p.289



<그림 7> 시부카지 스타일  
(89년, 東京)  
アクロス No.216, p.39

웨터, 폴로셔츠, 가죽 반코트, 네이비의 블레이저(blazer) 등을 유행시켰다. (그림 7)

## 2) 아메리칸 스포츠웨어 스타일(American sports wear style)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친 시기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스포츠와 다이어트가 주요 관심거리로 등장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웨어가 스트리트 패션으로 인기를 얻었는데, 크게 헤비듀티(heavy duty), 서퍼(surfer), 아메카지(American casual)로 간추려볼 수 있다.

헤비듀티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70년대 중반 이후 원래 '내구력있는' '튼튼한' 이란 의미이었으나 이에 기능성 중시지향과 아웃도어(out door) 혹은 서바이벌(survival)의 장면을 결합시켜 특수한 용도를 위해 개발된 기능성 위주의 의류와 잡화를 타운웨어로 입는 것을 헤비듀티라 명명하게 되었다. 대표적 아이템으로는 진, 낚시용 스웨터와 재킷, 다운 베스트(down vest) 등이 포함된다.<sup>55)</sup> 일본에서는 70년대 중반 이후 등산, 낚시, 스키용 의복이 스트리트 패션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그 중에서도 마운틴 파커(mountain parker)와 워크 부츠(work boots), 다운 재킷과 베스트 등이 인기 아이템으로 부상하였다.<sup>56)</sup> (그림 8)

76년 창간된 패션잡지 '포파이(popeye)'가 스포츠웨어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하여 헤비듀티 외에도 미국의 서해안을 이미지로 한 서퍼 룩(surfer look)이 인기를 모았다. 서퍼 룩이란 스포츠 자체보다 미국 서해안 서퍼들의 패션을 모방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처음에는 동경 부근의 쇼우난(湘南) 해안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나 78-9년경

이 되면 도심 속의 서퍼 룩으로 확산되었다.<sup>57)</sup>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스타일은 여성의 경우 어깨 끈이 달린 탱크 탑(tank top)과 프렌치 슬리브 등의 티셔츠를 입고 하의로 쇼트 팬츠나 먼 플레어 팬츠, 혹은 허리에 비즈로 된 벨트나 스트링으로 묶는 플레어 팬츠를 입었다. 이에 두꺼운 통굽의 고무로 된 샌들을 신었으며, 선탄(suntan)이 필수이었다. 이 무렵 헤어스타일도 어깨보다 조금 긴 길이의 스트레이트 머리에 양옆을 층으로 자른 형이 유행되었는데 이를 서퍼 컷이라 하였다. (그림 9) 그 후 87년이 되면 스케이트 보드와 랩이 유행하면서 중고생들의 스포츠 캐주얼웨어 스타일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를 아메카지(アメリカジ)라 불렀다.<sup>58)</sup> 아메카지란 아메리카 캐주얼의 약자로서 스웬(sweat) 소재의 트레이너 셔츠와 같은 아이템 외에도 검정색에 원색을 액센트로 사용한 트랙슈트(track suit)와 후드가 달린 파커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림 10)

## 3) 퍼포먼스 지향 스타일(performance-oriented style)

가벼운 것, 재미가 있는 것, 유희적인 것 등이 신인류의 특징 중 하나이다. 심각하거나 타인과의 경쟁과 대립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즐거움으로 치달는다. 일본청소년연구소 소장 센고쿠 다모츠(千石 保)는 이러한 현상을 표현주의라 부르고, 종래의 젊은이들이 학원분쟁을 일으키고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에 무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자신을 주장한데 반해 신인류는 반항 에너지를 유희적인 면으로 반전 시킴으로써 자기주장을 한다고 설명하였다.<sup>59)</sup> 따라서 80년대에는 춤과 패션을 통해 자기 세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표현한 스타일 그룹들이 종종 등장하였는데 본 연구에



<그림 8> 헤비듀티 스타일(78년)  
毎日新聞, 78. 1. 9



<그림 9> 서퍼 스타일(76년)  
ストリートファッション, p.170



<그림 10> 아메카지 스타일(87년, 東京)  
アクロス No.216, p.39

서는 이를 퍼포먼스 지향 스타일이라 명명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다케노코족(竹の子族)은 79년 여름에 하라주쿠(原宿)에 출현하여 기발하고 화려한 춤과 패션으로 순식간에 매스컴의 화제에 올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그룹이다. 80-81년에 절정기를 이루었으며, 그들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젊은 패션의 거리 하라주쿠의 이름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 죽순이란 의미의 다케노코란 이름은 '부티크 다케노코'로부터 유래한다.<sup>60)</sup> 그 곳의 대표적 패션은 적색, 황색, 오렌지색 등의 단순 명쾌한 가운데형 상의와 할렘 팬츠로 다케노코족은 그 옷 위에 장난스런 말들을 적어 넣은 명찰, 배지, 헤어핀, 작은 슝 인형 등과 같은 소품들을 매달고 학교 실내화나 쿡푸 슈즈를 신었다. 그리고 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하라주쿠 모여 치장한 후 카세트 라디오를 한 중간에 놓고 원형으로 둘러서서는 디스코 음악에 맞추어 간단한 동작의 춤을 추었다.<sup>61)</sup> (그림 11)

그 후 다케노코족이 쇠퇴하면서 제임스 딘을 동경하며 반체제를 흉내내는 로큰롤족(rock'n roll族)이 81년경 나타났다. 그들은 남성의 경우 리젠트 헤어스타일에 가죽 점퍼와 몸에 맞는 진, 여성은 포니테일에 프린트 무늬가 들어간 롱 개더 스커트라는 50년대 스타일을 입고 하라주쿠에 모여 음악에 맞추어 트위스트를 추었다.<sup>62)</sup> 50년대 스타일이란 50년대의 미국을 이미지로 한 복고풍 패션으로 이 스타일이 유행하게 된 계기는 75년 해산된 일본의 록 밴드와 비슷한 시기에 상영되어 폭발적인 붐을 일으킨 영화 '아메리칸 그래피티(American graffiti)'의 영향으로부터였다. 리젠트 헤어에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록 밴드의 모습과 50년대 히트곡과 함께 재현된 영화 속의 세계는 당시 십대에게 강한 동경과 공감을 불러일으켜 77년경 큰 유행을 낳았다.<sup>63)</sup> 따라서 80년대 초반에는 정기적으로 모여 퍼포먼스를 행하는 그룹이 나타났

으며 파스텔 컬러의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카페가 늘어나고 크림소다 등과 같은 음료가 인기를 얻었다. (그림 12)

80년대 중반 빅 실루엣과 아방가르드 경향이 퇴조하면서 미니멀리즘의 일환으로 아즈딘 알라이어(Azzedine Alaïa)에 의한 바디컨셔스(body conscious)라인의 패션이 등장하였다. 이는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87년경에는 직장여성들의 비즈니스웨어로 허리를 조인 무릎 바로 위 길이의 타이트 스커트나 바스트와 힙을 강조한 원피스, 혹은 슈트를 입은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sup>64)</sup> 그러나 스트리트 패션으로 일본에서 말하는 보디콘(ボディコン) 즉 바디 컨셔스는 80년대 후반 거품 경제를 배경으로 한 일본의 향락적 사회경향을 그대로 반영이라도 하듯 20대 여성들의 유흥복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그리하여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걸쳐 바디컨셔스 라인인 투피스나 원피스에 롱 스트레이트의 머리,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 나이트클럽을 찾는 젊은 여성들이 화제가 되었다. 특히 나이트클럽 '줄리아나 도쿄(Juliana Tokyo)'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곳에는 바디컨셔스의 의복에 깃털 장식을 한 젊은 여성들이 연일 모여 그 곳에 장치된 무대에 올라 부채를 흔들며 춤을 추었는데, 그들을 일컫는 보디콘이란 말은 패션만을 가리키기보다는 젊은 여성을 둘러싼 신기한 풍속으로서 주목을 모았다.<sup>65)</sup>(그림 13) 즉 그들에게 있어 패션이란 퍼포먼스, 즉 거리나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사람들의 주목을 모으기 위한 표현수단으로 무대의상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속에는 '춤추는 쾌감', '사람에게 주목받는 쾌감'을 추구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담겨 있다.

4) 일본 DC 브랜드 스타일(Japanese designer character brand style)

DC브랜드는 디자이너캐릭터 브랜드로서 디자이너의 독창



<그림 11> 다케노코족(80년, 東京)  
東京の若者, p.293



<그림 12> 로큰롤족(81년, 東京)  
毎日新聞, 81. 8. 9



성과 독자적인 상품기획에 의해 혁신적인 디자인을 산출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원래 일본의 DC브랜드는 70년대 전후에 생긴 맨션 메이커(mansion maker)로부터 출발했다. 그들은 하라주쿠와 아오야마(青山)에 있는 원룸식 맨션을 작업실로 하여 거리에서 자연발생하는 풍속들을 재빠르게 도입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의복을 만들었다.<sup>66)</sup> 그 후 74년 당시 중소 DC 어패럴기업 중의 하나였던 니콜(Nicole)의 마쓰다 미츠히로(松田光弘)의 제창에 의해 정기적인 컬렉션을 목표로 하는 디자이너 그룹이 결성되었고 그 그룹이 확대되어 81년 10월에는 도쿄 컬렉션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80년대 전반에 걸친 DC브랜드의 붐의 계기를 마련하였다.<sup>67)</sup>

당시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밀크(Milk)의 오오카와 히토미(大川ひとみ), 핑크하우스(Pink House)의 가네코 이사오(金子功), 미야케 잇세이(三宅一生), 비기(Bigi)의 기쿠치 다케오(菊池武夫), 니콜(Nicole)의 마쓰다 미쓰히로(松田光弘), 야마모토 간사이(やまもと寛齋), 와이즈(W's)의 야마모토 요지(山本耀司), 콤 데 가르송(Comme de Garçons)의 가와쿠보 레이(川久保玲) 등이었으며, 이들에게 일관되는 특징은 서구의 신체상을 철저히 파괴한 빅 실루엣, 형식화된 착장방식을 무시한 자유로운 겹쳐입기 등이었다. 그리하여 80년대에는 특히 83년부터 87년까지 DC브랜드의 완성도 높은 혁신적인 스타일과 시즌마다 바뀌는 천태만상의 트렌드는 신선한 패션의 원천이 되었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스트리트 패션에서 차별화된 그룹을 형성해 갔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가라스족(カラス族), 핑크하우스, 올리브(Olive) 스타일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81년 가와쿠보 레이와 야마모토 요지가 파리 컬렉션에 처

음 참가하여 화제를 모으면서 그 혁신적인 스타일이 스트리트 패션으로도 등장하였다. 그리고 전신을 검게 치장한 모습은 까마귀란 의미의 가라스족이라 불리게 되었다.<sup>68)</sup> 가라스족의 출현에는 패션잡지 'anan'의 존재가 컸다.<sup>69)</sup> 이 잡지는 70년대 후반부터 DC브랜드를 다양하게 취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와쿠보 레이와 야마모토 요지는 특히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패션업계 종사자들에게 절대적인 인기를 모았다. 가라스족은 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그 특징은 종래의 기성복을 초월한 대담한 디자인, 군데군데 찢기거나 구멍이 있고 구멍이 난 모습, 무채색을 기본으로 한 색 등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젊은 여성들이 그리는 새로운 도시적인 여성상과 결부되어 갔다. (그림 14) 그 후 수많은 복제로 저가의 제품이 시장에 나돌게 되면서 그 이미지도 서서히 쇠퇴되어 갔으나 가라스족의 검정색은 그 형태를 바꾸어 현재도 스트리트 패션의 한 형태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핑크하우스란 디자이너 가네코 이사오의 브랜드명으로 꽃무늬, 프릴 등으로 여성다움과 귀여움을 강조한 하늘거리는 원피스가 대표적이다. 83년부터 86년에 걸쳐 직장여성과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모았는데, 그 독특한 소재와 디자인으로부터 눈에 띄는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고 당시 마스크들은 그들을 일컬어 핑크하우스 패션이라 불렀다.<sup>70)</sup> 특히 기존의 감각으로부터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 조화시킨 미스매치(miss match) 감각이 특징으로 예를 들면 레이온과 폴리에스터 소재의 원피스에 데님과 가죽의 스포티한 점퍼를 걸치는 코오디네이트 방법을 들 수 있다.<sup>71)</sup> (그림 15)

80년대 중반 십대를 중심으로 큼직한 사이즈, 기성 개념을



<그림 13> 보디콘족(90년대 초반, 東京)  
ストリートファッション, p.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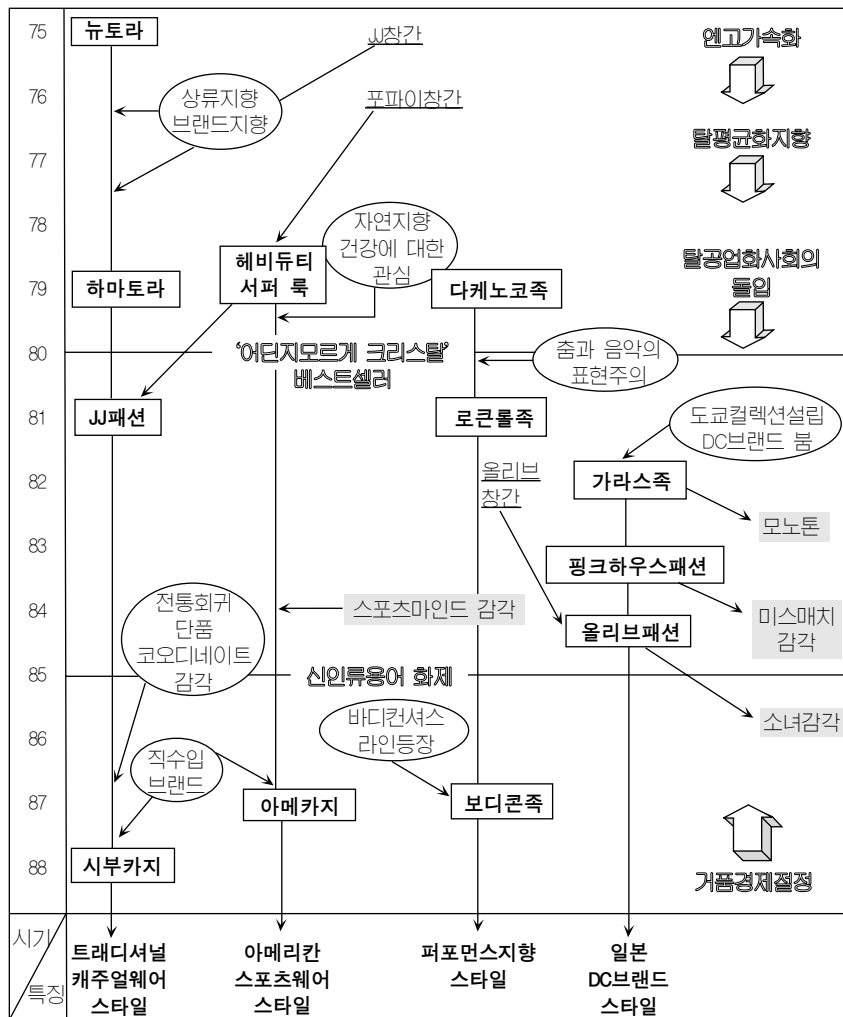
<그림 14> 가라스족  
(81년, 東京)  
東京の若者, p.41



<그림 15> 핑크하우스 스타일  
(83년경) 戦後のファッションと流行色, p.66



<그림 16> 올리브 스타일  
(81년, 東京)  
東京の若者, p.300



<표 1> 80년대에 나타난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

초월한 레이어드(layered) 방법, 레이스와 리본 장식 등이 특징인 소녀답고 귀여운 패션이 유행되었다. 이는 저스트 비기(Just Bigi), 비바유(Viva You), 아츠키 오니시(Atsuki Onishi) 등의 DC브랜드들이 선두가 되어 형성한 것으로 82년 창간된 잡지 '올리브'가 이들 브랜드 패션을 대거 선보이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따라서 당시 매스컴들은 이를 가리켜 올리브 패션이라 부르게 되었다.<sup>72)</sup> 그리고 그 후 전체적 패션경향으로 페미닌한 분위기의 장식적인 의복이 부각되면서 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백색의 커프스, 커다란 칼라, 레이스, 리본 장식, 포켓치프, 퍼프 슬리브 등이 크게 유행되었다.<sup>73)</sup>

지금까지 살펴본 DC브랜드들은 패션경향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단사이클의 트렌드를 제안하여 DC브랜드의 붐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나, 동시에 그들을 모방한 스타일들의 범람을 낳아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80년대에 나타난 일본 DC브랜드에 대한 인

기는 80년대 말 이탈리아를 위시한 수입 브랜드의 인기를 계기로 점차 식어갔다.

이상으로 살펴본 80년대 스트리트 패션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표 1>과 같다.

#### IV. 결론

지금까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어떻게 발생하여 변천되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80년대에 이르러 독자적인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시점 하에 8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스트리트 패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전후 도시화와 대중사회의 출현, 청년문화의 형성, 양장의 보급과 기성복 산업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하였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양장이 일반에 보급되는 과정에서 판판과 아프레족, 태양족, 미유키족, 히피와 후우텐족, 폭주족이 등장하여 각 시대를 장식하여 왔다. 그 후 80년대에 이르러 일본 독자적인 특성이 나타났는데, 그 성립 배경으로 탈공업화 사회의 성립과 신인류의 출현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스트리트는 80년대에 다음의 4가지 스타일 속에서 변화 발전되어 왔다. 첫째 트레이디셔널 캐주얼웨어 스타일로 당시 일본의 소비사회와 소비자들의 브랜드 지향과 결부되어 80년대 전반에 걸쳐 뉴토라, 하마토라, JJ 패션, 시부카지로 전개되어 갔다. 둘째 헤비듀티, 서퍼, 아메카지와 같은 아메리칸 스포츠웨어 스타일로 기능성과 활동성을 중시한 진, 티셔츠, 다운 파커 등이 특징이다. 셋째 다케노코족, 로큰롤족, 보디콘족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 퍼포먼스 지향 스타일은 퍼포먼스, 즉 거리나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사람들의 주목을 모으기 위한 표현수단으로서의 패션을 추구하는 신인류 특유의 스타일이다. 넷째 일본 DC브랜드 스타일은 81년 도쿄 컬렉션의 설립으로 조성된 DC 붐을 계기로 나타난 스타일로 가라스족, 핑크하우스 패션, 올리브 패션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끊임없이 스타일의 자유를 추구한 젊은이들과 그들의 욕구를 재빠르게 파악하여 제시해준 패션산업, 그리고 매스컴이 만들어낸 전후 일본사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 일본문화의 국내 개방 등으로 더욱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일본의 문화 중, 젊은이들의 패션 즉 스트리트 패션의 역사와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시대라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맞아 정체성있는 우리의 패션문화 성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Rene König, A La Mode, The Seabury Press, NY, 1973, p.209
- 南 精, バリモード II, 文化出版局, 東京, 1990, p.104
- James Laver, Costume and Fashion, Thames & Hudson, NY, 1969(82), p.261
- J. R. Gillis, 北本正章譯, 若者の社會史, 新曜社, 東京, 1985(90), p.1
- 조규화, 일본 패션의 국제화와 한국 패션산업의 과제, '87 서울텍스타일위크 패션세미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pp.3-104
- 간문자, 청소년문화가 스트리트패션에 미친 영향 -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2-1, 1998. 2
- 김정연, 한국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스트리트패션 연구, 숙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정현숙·양숙희, 하위문화 패션 출처로서의 영국 street style 연구, 복식 42, 1999. 2 외 다수
- Fischer C. S., Towards a Subcultural theory of Urbanism, American Journal of Society No.6, 1975, pp.1319 - 41
- 日本經濟新聞社編, ゼミナール日本經濟入門, 日本經濟新聞社, 東京, 1985(91), pp.34-5
- 三島 彰, 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の知識, 日本實業出版社, 東京, 1975, p.56
- 荻村昭典, 服装學への道しるべ, 文化出版局, 東京, 1987, p.16
- 三島 彰, 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の知識, p.80
- 단카이 세대란 47년부터 49년에 태어난 세대로 약 800만 명의 인구가 속한다. 현재의 연간 출생수 120만 명 정도와 비교하면 상당한 수를 차지했던 세대로, 60년대 전반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대규모의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 동경을 위시한 각 대도시에 집결하였으며 6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과 전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각 도시에 또 다시 집결하여 사회적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65년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생수가 100만명을 넘었다.(조규화, 일본 패션의 국제화와 한국 패션산업의 과제, pp.19-25참조)
- 小谷 敏, 若者論を読む, 世界思想社, 京都, 1993, pp.243-4
- ミニ世代13 - おしゃれ, 毎日新聞, 1968. 2. 7  
若者たち13 - アクセサリー-文化, 毎日新聞, 1970. 2. 4  
若者たち22 - ファッション革命, 毎日新聞, 1970. 4. 21
- 高橋勇悅, 藤村正之編, 青年文化の聖俗遊, 恒星社厚生閣, 東京, 1990, pp.76-8
- 日本流行色協會編, 戦後のファッションと流行色, 日本流行色協會, 東京, 1993, p.26
- 47년에 일본전국에 양재학교가 약 400개, 학생수는 약 4만명 정도이었으나, 48년에는 1500개로 증가되고 학생수도 2만명을 넘게 되었다.(千村典生, 戦後ファッションストーリー-, 平凡社, 東京, 1993, p.17)
- 柳洋子, キーワードでみるファッション化社會史, ぎょうせい, 東京, 1989(90), p.139-41
- 이지오더란 견본으로부터 소재와 디자인을 선택하고 가봉 없이 착용자의 사이즈에 맞추어 봉제하는 간이 맞춤복으로, 기성복과 맞춤복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식이다. (遠入 昇, アパレル, 日本經濟新聞社, 東京, 1987(90), p.14)
- 59년 세이부(西武)백화점이 루이 페로(Louis Feraud)와 계

- 악을 체결함으로써 처음으로 기성복의 고급화를 꾀하였으며, 62년에는 신주쿠(新宿) 이세탄(伊勢丹) 백화점에 영 패션 코너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三島 彰, 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の知識, p.84)
21. 生活革新の中のファッション, 毎日新聞, 1963. 6. 21
  22. 千村典生, 戦後ファッションストーリー, pp.139-41
  23. 日本流行色協會編, 戦後のファッションと流行色, p.27
  24. 田中千代, 新・田中千代服飾事典, 同文書院, 東京, 1991(95), p.22
  25. 千村典生, 戦後ファッションストーリー, p.45
  26. 그 외에도 60년대 초기 룻폰기(六本木)에서 향락을 즐긴 부유층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룻폰기족, 하라주쿠(原宿)에 차를 몰고 나와 배회했던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하라주쿠족 등이 있다.
  27. アクロス編集部, ストリートファッション, 株式会社パルコ, 東京, 1995, p.86
  28. みゆき族服飾論, 毎日新聞, 1964. 10. 2
  29. 日本流行色協會編, 戦後のファッションと流行色, p.44
  30. アクロス編集部, ストリートファッション, pp.86-7
  31. 미치광이란 뜻. 永島愼二의 만화 '후우텐(67-70년)'에서 비롯된 말로 그 속에 당시 후우텐의 생태가 잘 그려져 있다. 후우텐과 히피의 차이는 애매하지만 히피에 비해 비사상적인 것을 후우텐이라 불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일부의 히피를 제외하고는 사상적 배경이 없는 풍속적인 히피가 많았기 때문에 히피와 후우텐을 분류하는 명백한 차이는 거의 없었다.(아로스編集部, 스트리트 패션, pp.116-7)
  32. あふれる若者のバイタリティ, 毎日新聞, 1969. 6. 17  
文化は街頭を歩く, 毎日新聞, 1970. 1. 1
  33. アクロス編集部, 스트리트 패션, pp.62-3
  34. 暴走族1, 2, 毎日新聞, 1976. 5. 17-8
  35. 남자 머리형의 하나. 앞머리를 높게 뒤로 젖히고 옆머리를 양쪽으로 붙여 뒤로 넘긴 머리형
  36. 日本經濟新聞社編, 세미나ール日本經濟入門, p.13
  37. 荻村典生, 服装學への道しるべ, p.17
  38. 日本經濟新聞社編, 세미나ール日本經濟入門, p.19
  39. 國民生活白書要旨, 毎日新聞, 1981. 10. 27
  40. 人口構成, ひょうたん型に, 毎日新聞, 1981. 3. 31
  41. 強まるシングル志向, 毎日新聞, 1988. 5. 4
  42. アクロス編集部編, 新人類がゆく, 株式会社パルコ, 東京, 1985(89), p.19
  43. 戦後世代の精神史, アクロス, 株式会社パルコ, 東京, 1992. 3, p.78
  44. 生活型も優雅型に, 毎日新聞, 1977. 11. 29
  45. 現代っ子の菓子屋さん, 毎日新聞, 1977. 11. 2
  46. 内田盛也, 選擇消費革命, 同文書院, 東京, 1990, p.27
  47. ニュートラとモラトリアム, 毎日新聞, 1981. 10. 19
  48. 당시는 76년의 경우 1달러 305엔으로부터 78년에는 1달러 175엔으로 계속적으로 엔고(円高)가 가속화되었던 시기이다. 그 이유로 해외 여행이 보다 일반화되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붐을 초래했다는 설도 있다.
  49. 日本流行色協會編, 戦後のファッションと流行色, p.61
  50. 千村典生, 戦後ファッションストーリー, p.346
  51. アクロス編集部編, ストリートファッション, pp.184-6
  52. 일본 동경의 시내로서 지대가 높고 주택이 많은 지역. 중산층 이상이 주로 산다.
  53. 유행에 관계없이 어느 코디네이트에도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란 의미. 좋은 질, 단순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직수입 브랜드를 위주로 한다.
  54. 東京のヤングファッション, 毎日新聞, 1989. 6. 21  
紺のジャケット, 毎日新聞, 1990. 10. 8
  55. 田中千代, 新・田中千代服飾事典, p.933
  56. 綿入れならぬダウンベスト, 毎日新聞, 1978.1. 9  
愛用されるスポーツウエア, 毎日新聞, 1978. 2. 6
  57. 日本流行色協會編, 戦後のファッションと流行色, p.60
  58. アクロス編集部編, 東京の若者, 株式会社パルコ, 東京, 1989, pp.318-9
  59. 千石 保, 現代若者論, 弘文堂, 東京, 1985(89), pp.42-3
  60. 柳 洋子, キーワードでみるファッション化社會史, pp.234-5
  61. アクロス編集部編, 스트리트 패션, p.174
  62. 竹の子族を押さえロック族, 毎日新聞, 1981. 8. 9
  63. アクロス編集部編, 東京の若者, pp.294-5
  64. 若らしい気持ちで, 毎日新聞, 1987. 1. 15
  65. アクロス編集部編, 스트리트 패션, p.212
  66. 遠入 昇, アパレル, p.27
  67. 日本流行色協會編, 戦後のファッションと流行色, p.66
  68. 千村典生, 戦後ファッションストーリー, p.324
  69. アクロス編集部編, 스트리트 패션, p.196
  70. アクロス編集部編, 東京の若者, pp.289-9
  71. ミスマッチ感覺の元祖は金子功です, アンアン, 平凡出版, 東京, 1983. 4. 15
  72. アクロス編集部編, 東京の若者, pp.300-1
  73. 少女の世界もレトロロック, 毎日新聞, 1987. 10. 4